



# “양육산업 장기 육성책 마련하라”

- 본회 성 락 사무총장 한나라당 간담회 참석시 요구 -

지난 5월 2일 한나라당은 각 농민단체 장 및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각 업계의 동향을 살피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접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 본회 성 락 사무총장이 참석 양육업계의 현실을 전달하고 양육산업 장기 육성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 락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전세계 녹용생산량의 80%를 소비하는 녹용소비 대국이며 인근 중국 시장 공략 또한 수월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국내 양육산업은 무한한 잠재수요를 지닌 미래지향적 산업”이라고 밝히고 양육산업에 대한 장기 육성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무분별한 외산 녹용 수입으로 인한 국내 양육산업의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 금지 요구 및 수입 녹용의 사후 관리 철저, 수입녹용의 불법 유통 근절 등을 요청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한나라당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 박재욱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이상배 정책위 부의장, 주진우 의원,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허태열 기획위원장, 유형재 중앙위 농림해양분과위원장, 전순원 농림해양수산 수석 전문위원

등이 배석했다

아래는 한나라당 간담회시 제출한 공문 내용.

## 양육산업 관련 대선공약 요구사항

사단법인 한국양육협회

### 1. 양육산업 육성 장기계획 수립

- 양육산업은 무한한 잠재수요를 지닌 미래형 산업이며, 특히 현재 전세계 녹용생산량의 80%를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고 있음.

- 국내 녹용수요는 물론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수요에 대비, 뉴질랜드 및 북미국가들의 우리나라와 중국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에 나서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이러한 국제시장 재편과 우리나라의 여건 등을 고려한 양육산업 육성 장기계획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 계획경영을 지원해야 함.

### 가. 양육현황 및 문제점

- 사육농가수 1만5천호(2001년 말), 사육두수 약 23만두.(본회 조사)

- 매년 약 12% 사육두수 증가, 호당 평균 약 15.3두로 영세.

- 품종별로 꽃사슴 64%, 엘크 28%, 레

드디어 8% 분포.

- 녹용생산량 : 19만2천54kg.(도매시세 기준 약 4백50억원)

- 문제점 : 양록산업 미래에 대한 불안감 상존.(정책지원 소외)

품질고급화, 차별화 방안 정립미비, 국제경쟁 우위 확산 부족.

불안한 경영구조로 전업화, 규모화 의지 감소.

유통 및 소비기반 불비로 경영불안 가중.

#### 나. 양록산업 육성 장기계획 수립

- 정부주관(또는 위탁), 업계 및 학계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 양록업 실태(사육호수, 사육두수, 경영실태) 조사.

- 장, 단기 양록산업 육성방안 마련.

## 2. 무분별한 외국산 녹용수입 확대 정책 중단

- 국내 녹용시장(한약재) 대부분 수입 녹용이 점유.

- 국산녹용에 대한 한의업계 인식왜곡과 가격차이 등에서 비롯됨.

- 국산녹용 품질개선과 홍보, 상품화 단계에서의 차별화 등으로 경쟁여건 호전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최근 뉴질랜드의 절편녹용 수입압력 및 정부간 협상진행 등으로 녹용수입 확대에 대한 국내농가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 따라서 국내법과 현실을 무시한 절편

녹용 수입추진을 중단해야 함.

### 가. 현황 및 문제점

- 녹용 최대 생산국인 뉴질랜드는 98년부터 절편(얇게 썰어 포장)녹용 수입허용을 끈질기게 요구.

- 지난해 양록농가의 대규모 저지시위에도 불구하고 금년 1월 한, 뉴질랜드간 절편녹용 수입을 위한 정부간 협상 진행.

- 우리정부 금년말까지 절편녹용 품질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현지 검사관 파견에 동의함.

- 연간 국가별 녹용 수입량 중 생녹용 84.7%, 건녹용 62.6%를 뉴질랜드가 차지하는 등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서 뉴질랜드산 절편녹용 수입까지 허용하는 것은 국산녹용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임.

- 특히 절편녹용은 품질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짜, 저질녹용 수입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나. 요구사항

- 절편녹용 수입을 위한 정부간 협상 즉각 중단, 재검토.

- 향후 절편녹용 수입논의시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회의 개최.

- 원료의약품 원료 및 식품가공용 수입 녹용의 용도의 불법유통(국산둔갑) 강력 단속, 철저한 사후관리 요망.

- 수입녹용 검사업무 녹용생산자 단체로 지정.(현행 녹용수입자 단체인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독점 시행 중임) **민국양록**